

밝혀진 아키타 성의 역사

아키타시립 아키타 성터 역사자료관에서는 아키타 성 유적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아키타 성은 700년대부터 900년대 중반까지 조정의 지방 행정 및 국제 외교를 담당하는 기관이었습니다.

전시품에는 공문서를 기록한 목간, 묵서토기(먹으로 쓴 글자 등이 있는 토기), 기록 담당자가 사용한 도구, 무기, 갑옷 등이 있습니다. 자료관 밖에는 아키타 성의 성벽 일부가 복원되어 있습니다. 안내 데스크에서는 유적 전체의 모습을 AR 앱으로 보여 주는 태블릿을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.

아키타 성은 900년대 중반부터 쓰이지 않게 되면서 그 역사와 장소가 잊혀졌습니다. 1800년대 초 아키타 성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지만, 첫 대규모 발굴조사가 진행된 것은 1959년이었습니다. 발굴조사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으며 아키타 성에서의 생활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기대되고 있습니다.